전통과 첨단을 잇는 두 개의 브리지, 경상대학·교수연구동

전체 면적이 약 19,585.91㎡에 달하고, 총 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상대학·교수연구동은 42개의 강의실과
224명의 수용인원을 자랑하는 세미나실,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
학과사무실, 그리고 약 90여 개에 달하는 교수연구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경상대학과 교수연구동을 잇는 중앙 브리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층 개방형 브리지와 3층 터널형 브리지로 2중 연결된 구조로,
건물 전면에 유리창을 두어 자연채광의 이점을 극대화했으며,
모든 층에서 캠퍼스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좌우대칭형의 수직적 건물구조는 우리대학의 상징탑을 형상화한 것으로,
청대인의 진취적인 기상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방 후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 출발한 '청주 상과대학'의 역사는
이렇게 경상대학·교수연구동을 통해 그 뿌리와 전통을 오늘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CHEONGJU UNIVERSITY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Tel. 043-229-8011 Fax. 043-229-8015

WOW청대
Window of the World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3 Winter Vol. 66

WOW청대 2013 WINTER VOL. 66 CHEONGJU UNIVERSITY

Special Theme

Glocal University 청주대학교, 항공정비복합단지(MRO) 조성사업의 중심에 서다

Global Today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초정휴양웰니스사업단

Local Together
연탄처럼 따뜻한 우리들의 겨울나기

WOW People
효성건설 PG장 차천수 동문
한국정치학회 신임회장 김영재 교수

청주대학교 CHEONGJU UNIVERSITY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고,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신수도권 명문대학

충청 지역의 역할이 확대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도권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혜안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되
변화와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는 대학,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몰두하고 전념하는 대학.

신수도권 명문, 청주대학교가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석우문화체육관

청주대학교 소식지의 새로운 제호인 〈WOW 청대〉는
'세계를 향한 창(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와 함께
청주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우암산의 또 다른 이름인
'와우산'과 청주대학교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하는 의성어
'와우(Wow)'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WOW청대
Window of the World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3 Winter vol. 66

Contents

02 President's Message 총장 인사말

Special Theme

06 Special Opinion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청주시
08 Academic Union 항공도시의 신세계를 열어가는 청주대학교
10 Special Report 항공운항학과 모의비행훈련실을 가다

Glocal Report

14 Global Today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초정휴양웰니스사업단
16 Global Challenge 독일에서 환경정책의 미래를 보다, 세계도전장학탐방
18 Local Together 연탄처럼 따뜻한 우리들의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배달봉사
20 Glocal Action '책 읽는 청주'를 만드는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WOW People

24 청인보(淸人譜) 제1장 반듯이 지어 올린 일과 인생, 차천수 동문(건축공학과 72)
28 청인보(淸人譜) 제2장 '엄마의 마음'을 그리는 민화작가 한영희 동문(공예학과 82)
30 청인보(淸人譜) 제3장 깊은 울림을 주는 정치학자, 김영재 교수(정치외교학과)
32 청인보(淸人譜) 제4장 비움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공간의 창조, 박상아 학생(건축학과 5학년)
34 청인보(淸人譜) 제5장 위풍당당 발차기, 태권도 국가대표 조슬기 학생(체육교육과 2학년)

36 Photo Essay 세상의 본질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음에

Issue & News

38 Focus On 청주대 제9대 총장 김윤배 박사 연임 외
42 News Brief 청주대, 한중학술회의 개최 외
45 Special Lecture 김동온 LG화학 상무 명사초청 특별강좌 외
46 People News **교수소식** 이상렬 교수, 사이언티픽 리포트 논문 게재 외
동문소식 박근희 동문, 삼성사회공헌위원회 부회장 선임 외
48 Donation Guide 발전기금 종류 및 기부자 예우 안내

WOW 청대 2013년 겨울호(통권 66-4호)
발행일 2014년 1월 31일 | **발행인** 김윤배 | **편집인** 윤기택 | **발행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Tel. 043-229-8011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 **기획 및 디자인** ㈜꽃피는청춘 Tel. 02-3142-7373
촬영 이원재 | **취재** 이은형

푸른 말의 힘찬 기운으로 2014년을 달려갑니다

갑오년(甲午年), '청마(靑馬)'의 해가 밝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열심히 지내온 2013년을 뒤로 하고 기대에 찬 2014년의 문을 열었습니다. 푸른 말의 높은 기상과 강인함이 그대로 전해져 모든 청대인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내가 되어 생동감 넘치는 한 해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제9대 총장에 연임되어 다시 한 번 청주대학교를 위해 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학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다시 제게 맡겨주셔서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설립자의 후손으로서 두 분 설립자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되새기며 굳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옷깃을 여며봅니다. 민족애로서 후대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청주대학교의 지난 발자취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온 자부심의 역사였습니다. 충심으로 설립자의 뜻을 이어가며,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꾸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주대학교는 '교육환경이 좋아야 교육의 질도 좋아진다'는 교육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세계적 수준을 능가하는 교육환경개선에 매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이 삼위일체가 되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오면서 청주대학교는 매년 발전하는 대학교의 선두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고 가르침과 배움에 열정이 넘치는 대학으로서 경쟁력 있는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은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움과 상생의 정신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주대학교는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어가면서 변화를 주도해나가는 충북 지역의 대표 대학으로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촘촘한 고리가 되는 대학으로서 눈부신 한 해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올 한해도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로 청주대학교의 힘찬 발걸음을 지켜봐 주십시오.
재학생과 청주대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청대인, 교직원, 그리고 9만여 동문 여러분 모두 푸른 말의 힘찬 기운으로 승승장구하는 2014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주대학교
총장 김윤배

06
Special Opinion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으로
신 항공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청주시

08
Academic Union

충청북도와 함께 항공도시의
신세계를 열어가는
청주대학교

10
Special Report

최첨단 비행시뮬레이터에 오르다!
항공운항학과 모의비행훈련실

Special Theme

Glocal University 청주대학교,
항공정비복합단지(MRO)
조성사업의 중심에 서다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꿈은 라이트 형제에 의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의 존재는 지구촌의 교류와 소통을 한 단계 더 앞당겨주었고,
보다 다양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항공산업은 고도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최첨단 산업입니다.
그리고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을 책임지는 일,
그 핵심적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주대학교는
항공정비복합단지(MRO) 조성사업의 중심에 섰습니다.

21세기 항공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청주시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신흥 항공명문으로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고,
충북 지역이 항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Special Opinion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으로 신 항공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청주시

전통문화와 교육의 도시로 경쟁력을 지녀온 청주시가 항공도시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개항 17년에 접어드는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정비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항공교육훈련센터와 항공R&D센터, 항공물류, 부품제조 등의 산업을 유치해 국제적인 항공 MRO 산업 기지로 새롭게 도약하려는 청주시의 꿈을 들여다본다.

청주시, 동북아 '신 항공 MRO'의 허브를 꿈꾸다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산업은 고도의 기술과 품질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항공기의 정밀한 수리와 정비, 개조를 위한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하기에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산업이며, 그래서 꾸준한 수요와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한항공을 제외한 민간항공기의 핵심 정비를 미국이나 호주, 싱가포르 등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 항공 MRO 시장은 연 4.3%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그 규모가 684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항공 운송 산업 또한 꾸준한 성장세에 있어 유망한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항공 MRO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충청북도가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정비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2009년 말 국토교통부에서 청주국제공항을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했고, 군수항공 분야 MRO 사업을 하는 KAI(주)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2011년 9월에는 충북테크노파크에 항공산업 TF팀을 설립해 '동북아의 신 항공 MRO 허브'로 우뚝 선다는 비전을 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항공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항공기부품생산시설, 항공교육훈련센터, 항공R&D센터, 항공물류, 호텔 등의 지원시설을 집적해 종합 항공정비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충북테크노파크 항공산업지원센터와 청주대학교가 공동으로 '2013 항공 MRO 산업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이날 토론 결과를 반영해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내에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유치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10월,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렸던 국제에어쇼 현장(위)
충청북도와 MOU를 체결한 일본 최대 항공기업, JAL그룹(아래)

개항 17년에 접어드는 청주국제공항

국내 최고의 항공우주 인프라, 그 중심에 선 청주국제공항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있어 항공 MRO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못지않은 숙원사업이 되었다. 청주시가 자신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내 최고의 항공우주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공군도 인정하는 부분으로, 청주시에는 공군사관학교와 17, 19 전투비행단, 공군비행장, 청주국제공항 등 최고의 항공 관련 시설과 교육기관들이 모여 있다.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전국 어느 곳에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도 큰 강점이다. 청주국제공항은 서울에서 70분, 대전에서 45분, 전북 전주와 강원 원주에서 각각 90분, 경북 안동에서 80분 등 전국 어느 곳이든 2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고속도로와 철도망을 갖추고 있다. KTX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오송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천안과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수도권 전철의 연장계획도 확정되었고, 청주국제공항은 이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사통팔달의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수도권을 형성하게 될 세종시의 새로운 관문이 되는 것이다. 최근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 수와 항공기 운항 편수가 크게 늘고 있어 이 또한 청신호다. 연간 이용객이 개항 당시 37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11년 이후 13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전국 5위권 공항으로 성장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국내선 운항은 6,535회에서 6,582회로 0.7% 늘었고, 국제선 운항은 1,076회에서 1,476회로 36.3% 증가했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63.9%나 증가해 항공 MRO 산업의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인 '꾸준한 수요 창출'과 관련해 기대지수를 높이고 있다.

세계적인 MRO 전문업체도 높은 관심 속 협력

해외 유수의 항공 MRO업체와 항공사들은 이미 항공정비복합단지로서의 청주국제공항의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오고 있다. 얼마 전 일본 최대 항공기업인 JAL그룹의 'JAL엔지니어링(JALEC)사'와 말레이시아의 세계적인 MRO 기업인 'MASAE사'가 항공정비사업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LCC(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 글로벌 항공물류기업인 독일의 DB 쉥커, 국내 이스타항공 등과도 전략적인 교류를 진행하면서 항공 MRO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사업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다. 'JALEC사'는 JAL그룹의 항공정비 부문 회사로 JAL사의 항공기 220여 대의 정비와 개조, 엔진정비, 도장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MASAE사'는 말레이시아 국적항공기인 말레이시아에어라인의 항공정비회사로 Aviation Week가 선정한 '2009 Overhaul & Maintenance BEST 아태지역 항공 MRO 운영상'을 수상하는 등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회사이다.

최근에는 에어아시아그룹이 청주국제공항에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에 '에어아시아 코리아'의 모기지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에어아시아그룹은 잠재된 중부권 수요를 청주국제공항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에어아시아 코리아 측은 충북, 충남, 경기 남부, 경북, 전북 일부 등 중부권의 잠재된 수요를 창출해 활용한다면 청주국제공항은 세종시와 대전 충청권의 관문공항으로 성장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국제공항이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되고, 'MRO 유망거점지역'에도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청주대학교와 같은 인근의 풍부한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다.

이처럼 국내외 전방위에서 청주시의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이는 곧 국내외 기업 유치에 탄력을 주어 청주시의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Academic Union

충청북도와 함께 항공도시의 신세계를 열어가는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가 충청북도와 함께 항공도시로의 비상을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2012년 시작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청주대학교 항공학부의 발 빠르고 적극적인 교육과 행보는 청주시의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최고의 지원 속에서 항공전문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항공운항학과와 항공기계공학과 학생들의 높은 만족지수는 우리나라 항공업계에 푸른 신호등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가올 항공도시의 신 동력원, 청주대학교 항공학부

청주시가 추진하는 항공 MRO 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한 변수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장이 성장세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항공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30년까지 4만여 명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조종사와 정비사 등의 항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청주대학교 항공학부에 앞으로 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공항 운영, 청주대학교 항공학부를 통한 전문 항공인 교육, 항공 MRO를 통한 항공정비 등 항공기 생산을 제외한 항공산업의 주요 3축이 모두 청주시에 구축된 셈이다.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와 항공 MRO 사업 추진에 발맞춰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가는 항공학부 인재들이 충청권을 비롯한 국내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활약할 날이 머지않았다.

오스트리아 '다이아몬드사'의 최첨단 훈련기 4대 구입

새로운 항공 명문대로 부상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

이러한 관점에서 청주대학교 항공학부의 인재 양성은 충청북도와 함께 진행해나가는 프로젝트라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충청북도의 '항공산업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대 전제 아래 2012년 항공운항학과가 첫 신입생 30명을 선발했고, 이어 2013년에는 항공기계공학과를 신설했다. 국내에서 항공 관련 학과로서는 뒤늦은 출발이었지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상의 교육여건과 커리큘럼으로 무장한 것이 청주대학교 항공학부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자격증만 있는 전문인이 아닌, 기본기가 잘 배어있는 '좋은 조종사'와 '좋은 정비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측에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하드웨어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인근의 공군사관학교와 17, 19 전투비행단 등을 견학하며 장비와 시설, 관제탑, 안전시설, 조종사 생활 등에 걸친 다양한 현장 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비행시간을 200~250시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항공사 인턴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자체 항공기나 자체 훈련공간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으로 청주대학교는 이를 위해 얼마 전 최첨단 훈련기 4대와 비행시뮬레이터를 구매했다. 항공운항학과를 개설한 대다수의 대학들이 위탁교육을 하는 실정인데, 청주대학교는 이번 구매를 통해 시뮬레이터연습과 비행연습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자체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훈련기 4대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를 항공기 입출항기지로 활용하게 된다. 또, 국내 민간항공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보해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입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경험케 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기 제작사인 오스트리아의 '다이아몬드사'와 협약을 맺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항공기계공학과 학생들을 인턴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외국 항공기 제조사의 선진 기술을 경험할 기회도 마련했다.

충북과 함께 만들어가는 항공우주 메카의 꿈

2013년 12월 4일에 있었던 '2013 항공 MRO 산업발전 심포지엄'은 충북테크노파크 항공산업지원센터와 청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였다. 충청북도 내에서 항공 MRO 산업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청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이 행사를 주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공 MRO 사업 추진에 있어 청주대학교의 역할과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충북MRO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항공 관련 업체 CEO와 임직원, 항공 관련 대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 항공 MRO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항공기 부품정비산업 육성방안', '항공 MRO 산업 활성화 방안', '항공 MRO 산업에 기반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고, '에어로폴리스 항공 MRO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방안'에 대한 열띤 패널 토의도 진행되는 등 항공도시 청주의 비상을 꿈꾸는 충청북도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다.

실제 사용되었던 항공기 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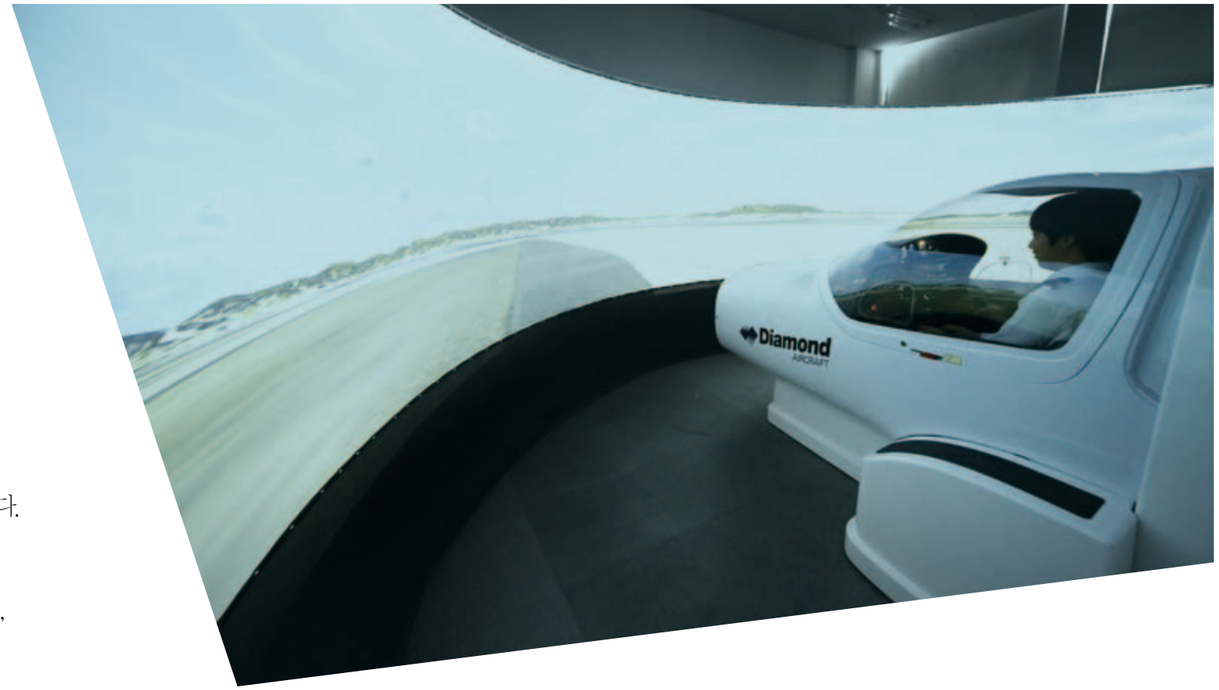
청주대학교 항공학부

항공학부는 예비역 준장으로 공군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김관호 교수와 예비역 공군대령으로 23년간 공군사관학교에서 공군전투기 조종사를 길러낸 조환기 교수가 학생들을 이끌고 있으며, 공군 참모차장, 작전사령관, 공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한 오창환 예비역 중장이 객원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졸업 후에는 해군과 공군의 조종장교, 민간항공사의 파일럿, 운항관리사, 항공기 정비회사, 항공기 부품 및 완제기 제작사, 항공(기계) 관련 연구소, 산업체의 연구원, 국토해양부 전문직 등으로 진출하게 된다.

항공운항학과 I 국제 수준의 정예 조종사와 운항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학생들은 항공운항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공중항법, 운항절차 등의 실무역량을 키우고, 항공기와 시뮬레이터 등 첨단교육장비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조종 실기교육을 받는다.

항공기계공학과 I 항공기 정비기술 전문가와 기계공학 기술자를 양성한다. 항공기 기체, 항공 장비, 항공기 엔진 등의 항공정비 전문지식을 비롯해 항공역학, CAD/CAM 등을 활용한 항공기 설계와 각종 부품설계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우게 된다.

Special Report



최첨단 비행시뮬레이터로 고공비행 준비 완료!

청주대학교는 지난해 3월, 오스트리아 다이아몬드사로부터 최첨단 훈련용 비행기 4대와 비행시뮬레이터를 구매한 바 있다. 최근에 항공운항학과를 신설한 5개 대학 가운데 최초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항공기 DA-40NG의 비행특성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위에서, 항공학부 학생들은 국내 최고 수준의 비행실습 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최첨단 비행시뮬레이터를 품은 모의비행훈련실

올해 3학년이 되는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은 정규과목으로 비행실습 시수를 이수해야 한다. 청주대학교는 지난해 학생들이 '학교 소유의 비행기와 비행시뮬레이터'로 비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최첨단 훈련용 비행기 4대와 비행시뮬레이터를 해외로부터 들여왔다. 최근 항공운항학과를 신설한 5개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한, 매우 적극적인 행보다.

학과 신설 이후 1년 반 동안 학과 내 'PC 비행시뮬레이터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모의비행을 연습했던 학생들은 이제 제법 큰 규모의 모의비행훈련실에서 실제 비행기와 똑같은 구조의 비행시뮬레이터로 연습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실습을 책임질 비행 교관도 정식으로 채용해 본격적으로 비행 훈련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8월부터 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비행시뮬레이터는 항공기 제조사인 오스트리아의 '다이아몬드사'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청주대학교가 구매한 항공기 DA-40NG의 비행특성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특히 이 장치는 항공기 제작사가 갖고 있는 설계 및 비행시험 자료를 활용하여 매우 우수한 비행모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탑승하여 비행실습을 할 때 스크린에는 청주 지역의 산과 마을이 그대로 펼쳐져 현실감을 더했다.

이 비행시뮬레이터는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로부터 "가" 급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비행시뮬레이터에 탑승할 경우 자가용 조종 자격증 취득 시에는 5시간까지, 사업용 조종 자격 취득 시에는 10시간까지 실제 비행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렇듯 캠퍼스 안에서 체계적인 비행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항공학부 학생들의 꿈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비행시뮬레이터 내 계기 조종석 패널

Mini Interview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실력 있고 멋진 파일럿이 되겠습니다!"

하성찬(항공운항학과 13학번)
"학교가 구매한 비행기와 똑같은 모습의 시뮬레이터가 온다기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직접 타보니까 기대 이상이에요. 학교의 지원이 눈에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행 실력만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전투기를 몰고 싶은데, 그 꿈 꼭 이루고 싶습니다."

조성현(항공운항학과 13학번)
"진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처럼 실감 났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항공운항학과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여겨졌고,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연습하고 노력해서 멋진 파일럿이 되고 싶습니다."

르바타 재민(항공운항학과 13학번)
"저는 민간항공기를 운전하는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시뮬레이터는 PC로 비행연습을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빨리 3학년이 되어 진짜 비행기를 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시뮬레이터로 많이 연습하면 자신감도 커질 것 같아 좋습니다."

청주대 항공운항학과가 보유한 최신 훈련기, 'DA-40NG' TIP

완전탄소복합소재로 제작된 경항공기 'DA-40NG'
세계 최초로 제트연료 사용, 최첨단 디젤엔진 장착

김윤배 총장과 항공학부 조환기 교수 등 대학 관계자들은 지난해 3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처의 항공기 제작사 '다이아몬드사'를 방문해 'DA-40NG' 4대를 구매했다. 지난 1월 7일, 드디어 부산항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으로 옮겨진 이 항공기들은 오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DA-40NG'는 전 기체가 완전탄소복합소재로 제작된 최첨단 경항공기이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기종으로, 완전탄소복합소재라서 가볍고 강도가 우수하다. 최첨단의 디지털 계기 조종석 패널(Glass Cockpit)과 항법장치를 갖춘, 기존의 국내 훈련기와는 설계 개념과 차원이 다른 차세대 교육용 항공기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엔 개인용 비행기로 제작되었으나 훈련 및 연습용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DA-40NG'는 또한 공기역학적인 비행 성능이 월등하며, 특히 훈련기로는 세계 최초로 제트연료를 사용하는 최첨단 디젤엔진(BMW)을 장착하고 있어 연료비 절감효과가 탁월하다. 제트연료는 항공 휘발유와 달리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의 항공기들은 '하이 윙(고익기)'으로 날개가 동체 위쪽에 달렸지만, 'DA-40NG'은 '로우 윙(저익기)'으로 아래쪽에 달려 있다. 그래서 외부 시야(특히 동체가 경사졌을 때)를 확보할 때 용이하고, 비행안전성도 높다.

이러한 최신 기술이 녹아있다는 이유로 대당 구매가격은 타 기종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연료비 등의 운영비를 고려할 때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실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대학은 탁월한 비행교육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완벽한 비행실습을 위해서는 비행시뮬레이터와 비행기 등의 장비 구축 외에도 활주로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대학은 그동안 공항공사 본사와 17전투비행단과 지속적인 접촉을 해온 결과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DA-40NG'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활주로를 만들어 비행훈련을 하는 것이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의 목표이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닌 청주국제공항의 특성상 전투비행단의 작전 훈련과 관련해 비행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활주로로 적합한 지역을 찾고자 충북 보은과 충주, 진천 등지의 장소를 답사하며, 마땅한 지역을 물색 중에 있다.

Glocal Report

세계 속의 청주,
청대 안의 세계

드넓은 세계를 품어 안으려는 '글로벌'과 지역과 함께 세계를 꿈꾸는
'글로컬'이 공존하는 이 곳, 청주대학교에서
지역과 세계가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삶'의 법칙을 배웁니다.

14
Global Today
초정광천수로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초정휴양웰니스사업단

18
Local Together
연탄처럼 따뜻한 우리들의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배달봉사 후기

16
Global Challenge
독일에서 환경정책의
미래를 보다
2013 세계도전장학탐방 후기

20
Glocal Action
지역과 함께 '책 읽는 청주'를 만드는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Global Today

초정광천수로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초정휴양웰니스사업단

초정광천수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재탄생될 준비를 마쳤다. 최근 '초정 미라클'이라는 브랜드로 새 옷을 갈아입은 초정광천수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명품화하기 위해 청주대학교 초정휴양웰니스사업단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초정광천수의 천연기념물 등재에 힘을 싣는 등 지역 산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동시에 세계시장에도 진출, 진정한 글로컬을 실천하고 있다.

세계 3대 광천수의 명품화 위해 초정휴양웰니스사업단 발족

"청주에서 동쪽으로 39리에 매운맛이 나는 물이 있는데, 이 물에서 목욕하면 피부병이 낫는다." 동국여지승람에 전해지는 초정광천수에 관한 기록이다. 이 물로 세조는 피부질환을 치료했고, 그보다 앞서 세종은 114일간 초정리에 행궁을 짓고 머물며 눈병을 치료해 한글 창제를 마무리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청원군 일대, 더 정확히는 청원군 북일면 동단 소백산 중앙부의 구녀산 기슭에서 용출되는 초정광천수는 미국 샤스타, 영국 나포리니스와 함께 세계 3대 광천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흔히 '미네랄 워터'라고 불리는 광천수는 바위틈이나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에 광물질이 용해된 지하수를 말하는데 초정광천수는 특히 미네랄 밸런스가 뛰어나며, 게르마늄과 라돈 등의 성분과 효능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입증됐다.

청주대학교는 지난 2009년 5월, 정부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따라 초정휴양웰니스사업단(이하 초정사업단)을 발족했다. 이처럼 훌륭한 자연유산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특화된 지역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였다. 지식경제부와 청원군, 청주대학교,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진행된다.

초정광천수, 공동 브랜드 '초정 미라클'로 세계시장 진출

초정사업단이 사업 초기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광천수의 수질관리 체계를 세우는 일이었다. 초정광천수는 그 동안 그 유명세로 무분별하게 취수가 이뤄져 용출량이 급감하고 있었고, 지하수 오염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 1단계에서는 초정광천수의 주요 성분과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냈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들이 광천수의 공동 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기능성 물티슈, 마스크팩, 미스트, 음료 등 5대 특화제품을 발굴, 출시해 초정광천수의 효능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병행했다.

2013년까지 이어진 사업 2단계에서는 초정광천수를 활용한 상품들의 공동브랜드 '초정 미라클(CHOJEONG MIRACLE)'을 출시했고, 초정 미라클의 이름으로 출시된 마스크팩과 미스트 제품이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초정사업단은 태국 방콕의 화장품유통회사 LASHES사와 2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2천 달러의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수출했다. 현재 초정 미라클 제품은 방콕 중심가의 대형 매장에서 판매 중이며, 2015년까지 방콕 내 입점 매장을 5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의 DVPK CO사와도 수출 합의가 이뤄져 오는 2월에 첫 선적이 예정되어 있다.

대학의 사회적 기여에 집중, '초정광천수협회' 성사 이끌어내

초정사업단 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는 사업단 출범 4년 만에 초정광천수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해냈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 발족한 사단법인 초정광천수협회는 초정광천수가 세상에 알려진 지 570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초정광천수 관리조직이다. 청원군과 관련 전문가, 지역유지, 학계가 뜻을 모아 초정광천수의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협회에서 초정사업단은 초정 지역과 관련 산업, 행정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마케팅과 기업 지원 분야에 우리대학 광고홍보학과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 충북발전연구원의 초정광천수 연구 전담팀과 함께 물 관리에 아이디어를 더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축제도 열었고, 재학생들은 현지에 마련된 홍보관에 파견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값진 경험을 쌓고 있으며, 전국 규모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초정휴양웰니스사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Mini Interview

박구원 초정휴양웰니스사업단장 / 관광경영학과 교수

초정광천수와 연계한 지역연고사업이라는 점에서 초정을 비롯한 주변지역이 사업단에 갖는 기대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초정광천수는 국가의 소중한 자원임에도 관심 부족으로 과거의 산물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처음에 관광지역으로 살려보겠다고 계획한 사업인데, 원천적으로 광천수 '물' 관리가 관건이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역과 관련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초정 지역 활성화에 힘쓰는 만큼 조만간 프랑스의 에비앙처럼 재조명받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초정 미라클'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든 후 관련 상품들이 성공적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태국은 첫 수출지로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참가해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의 바이어를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태국이 수출 1호가 됐습니다. 이번 첫 수출은 동남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미국과 멕시코 등을 대상으로 수출을 타진해볼 예정이어서 다양한 해외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해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은 무엇인지요.

초정광천수를 천연기념물로 등재시키는 일입니다. 오는 6월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동안 초정광천수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 지역의 의식이 달랐던 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초정광천수협회가 발족하면서 관리주체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문화재로 등재만 되면 더 확고한 중심체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기업과 주민, 브랜드가 더 공고히 통합되는 중요한 계기도 될 것입니다.

청주대학교가 초정휴양웰니스사업단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업단의 남은 계획은 무엇인지요.

우리대학이 그 동안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노력한 예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지역과 함께 지역의 산업환경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에, 지역 특성을 살려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켜가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Global Challenge

독일에서 환경정책의 미래를 보다

매년 여름, 겨울방학 시즌이 찾아오면 많은 학생들이 꿈꾸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해외여행이다. 해외여행을 가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여기, 반짝이는 연구주제 하나로 세계도전장학탐방 프로그램에 지원해 당당히 합격한 후 학교의 든든한 후원을 등에 업고 독일 탐방길에 나선 청춘들이 있다. 지난 방학은 분명 그들에게 가장 값진 시간이자 빛나는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2013 세계도전장학탐방 후기
유경미
(간호학과 2학년)

독일은 자전거이용률이 27%로 굉장히 높아 신호등에 자전거용 녹색불이 따로 존재한다.

해외 선진사례를 탐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다

총 세 팀에게만 주어지는 세계도전장학탐방에 지원하여 최종 선정된 나와 팀원들(여동진(중국학과 05학번), 신근영(간호학과 12학번))에게 지난 여름방학은 정말 기적 같은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우리대학 국제교류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연수 방학프로그램 가운데, 세계도전장학탐방은 학생들이 직접 연구주제를 정하고,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최종 선발된 팀에게 해외탐방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점인정까지 해주는 제도이다. 팀원 중 한 명 이상이 일정 자격 이상의 어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정해준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가 주제를 정해 원하는 나라를 방문하고, 탐방 코스도 직접 짜서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매력적이었다.

우리 팀의 해외탐방 주제는 '독일의 환경정책'이었다. 21세기 중심가치는 '환경'이라는 판단 하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 있어 현재 가장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을 방문하여 선진사례를 둘러보고 배우고자 하는 취지에서였다. 막상 방문국을 정하긴 했지만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 무지했던 우리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 탐방을 준비했다. 주제에 적합한 독일의 도시들을 물색하고, 가서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 팀원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의견을 좁혔다. 모든 일정이 확정된 후에도 최소한의 경비지출을 위해 항공권과 숙박시설을 꼼꼼하게 알아보는 등 시간은 빡빡했지만 내게는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세계 최고의 환경 선진국, 독일에 입성하다

우리가 방문한 독일의 도시는 프라이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뮌헨 등이었다. 독일은 세계 최초로 트램이 만들어진 나라이기도 하다. 트램은 지하철과는 달리 지상으로만 다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절감되고, 전기를 이용하므로 환경오염 또한 적다. 인도와 트램이 다니는 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지만 트램은 언제나 사고율 제로(Zero)를 자랑한다. 그래서인지 독일의 어느 도시를 가도 트램은 가장 흔한 교통수단이었다.

또한 독일은 자전거 이용률이 27%에 달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신호등에 자전거용 녹색 표시등이 따로 존재할 정도다. 곳곳에 자전거 보관소를 두어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추구한 것 또한 눈에 띄었다. 독일 행정부가 도입한 트램 순환도로 체계가 자전거 이용률은 15%에서 27%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11%에서 18%로 끌어올렸고, 반면 자가용 이용률은 38%에서 29%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기차를 타고 이동 중에 보았던 주택 곳곳에는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태양열 집열판이 지붕 위를 장식했고, 프라이부르크에는 13세기에 만들어진 '베히레'라고 하는 수로시설이 유일하게 남아있어 도심의 홍수를 방지하는 등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이렇듯 독일로 떠난 우리들의 세계도전장학탐방은 독일의 환경정책은 물론, 독일인들의 환경의식까지 몸소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길 위에 쓰레기 하나 발견할 수 없었던 나라, 기차나 택시, 트램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나라로 기억될 독일. 우리대학의 유익한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것을 경험한 의미 있는 방학이었다.

13세기에 만들어진 프라이부르크의 수로시설 '베히레'는 흑림과 드라이잠을 통해 유입된 물을 시내 중심부로 흘려보냄으로써 홍수를 방지한다.

퓌센에 위치한 노이슈반슈타인성. 디즈니랜드 성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유명하다.

함께 세계도전장학탐방길에 올랐던 조원들과 프랑크푸르트 마인강변에서

Local Together

나누는 기쁨, 함께라는 행복

연탄처럼 따뜻한 우리들의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후기

이나영
(치위생학과 2학년)

작은 구멍들 사이로 불이 붙는다. 새까만 연탄이 타오르고, 차가운 방에는 이내 온기가 스며든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게 데워진다. 지난해 12월 5일, 우리대학 학생, 교직원 120여 명은 추운 겨울을 나는 따뜻한 방법으로 사랑의 연탄 배달부 역할을 자처했다.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답게 화기애애했던 그날의 기억을 이번 봉사에 참여한 학생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본다.

이웃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값진 땀을 흘리다

2014년을 이끌 새로운 총학생회 임원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현재 총학생회장으로부터 '12월 5일에 연탄 배달 봉사가 있으니 참여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 봉사는 학생회 임원진(총학생회,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과 교직원(각 단과대학 학장님, 학생처 선생님 등)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대학 인근의 우암동과 내덕동에 위치한 40여 가구에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는 행사였다. 작년에도 학생회 임원으로 참여해 매우 뿌듯했던 경험이 있던 나는 그 메시지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꼭 참여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행사 당일 오후 1시, 학교 정문에서 학생회 임원진들이 하나 둘씩 모여 그 동안의 안부와 오늘 있을 봉사활동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와 설레는 마음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차가운 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부딪히는 나뭇잎처럼, 참가자들의 얼굴은 추운 날씨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온통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보였다.

봉사활동은 크게 우암동과 내덕동 두 팀으로 나뉘어 총 1만3천여 장의 연탄을 나르는 일을 수행해야 했다. 내가 속한 총학생회 임원들은 우암동에 위치한 여섯 가구를 맡게 되었다. 연탄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가구마다 거주자 분들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고, 동네를 지나가는 분들도 학생들이 좋은 일 한다며 격려를 해주시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우리 역시 힘을 내서 훨씬 효율적으로 춤을 추듯(?) 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이번에는 배달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거주자 분들의 안전을 고려해 연탄가스 경보기 설치봉사도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마음이 놓였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모금활동을 통해 장만한 사랑의 연탄 1만3천여 장은 이날 우리대학 인근의 우암동과 내덕동 40여 가구에 세대별로 200~300장씩 나눠 전달됐다. 특히 올해는 연탄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을 위해 연탄가스 경보기도 함께 설치했다.

더 많은 청대인이 연탄 봉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상했던 것보다 연탄이 무겁고, 수량도 많아 팔은 조금 아팠지만 앞으로 1년간 동고동락할 임원진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벅찬 기분도 느꼈다. 각자의 얼굴에 까만 그림도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변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박장대소 하는 좋은 추억을 하나 더 쌓았다고 생각하니,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우리가 더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다들 지그재그 형태로 서서 각자의 순서에 맞춰 연탄을 나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 이곳에 모인 봉사자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하고 있구나 하는 동질감이 들었다. 자칫 힘들기만 할 수도 있었던 연탄 봉사활동 중간중간에 서로의 얼굴에 까만 연탄재를 묻히고, 이미 까매진 친구의 얼굴 위에 연탄재가 듬뿍 묻은 장갑으로 세수를 시켜준다며 한번 더 문지르는 장난이 더해지니 더 신나고 재미있는 봉사활동이 된 것 같다. 새까맣게 변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던 일행 모두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연탄 나르기 봉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그 날의 즐거움과 보람을 남기기 위해 까만 얼굴 그대로 단체사진도 남겼다. 봉사 후 간식준비를 하러 가야 해서 일찍 세수를 해야 했던 나는 까만 얼굴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해 조금 아쉬웠지만 말이다.

작년과 올해 봉사를 해보니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연탄 봉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좋은 행사는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학생회 임원진뿐만 아니라 1만3천 재학생 누구라도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

Glocal Action

책을 향한 뜨거운 열망, 청주시의 도서관 문화를 바꾸다

지역사회와 함께 '책 읽는 청주'를 만드는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곽동철 문헌정보학과 교수

곽동철 교수는 연세대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1995년부터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 국립중앙도서관 간행물편찬위원, 한국대학도서관협회장, 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 청주지역의 도서관 문화 정착을 위해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을 시작으로 한
교육문화도시로의 재도약

청주시의 공공도서관 건립 초기 사정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의 연속이었기에 많은 우여곡절 속에 단계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청주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민선 2기(나기정 시장)에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의 기공식을 시작으로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된다. 그 후 2002년 민선 3기(한대수 시장) 출범과 함께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권역별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발표, 교육문화도시로의 재도약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 청주시 담당부서에서는 '도서관 발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당시 문화방송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추후 '책읽는사회문화재단'으로 법인화됨)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인 '기적의도서관 건립 사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했다. 이후 청주시는 '도서관 발전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용암동에 청주시립정보도서관과 청주기적의도서관을 개관했고, 사천동에 북부도서관 기공식을 마쳤다.

2006년 민선 4기(남상우 시장)에는 북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신율봉어린이도서관 개관에 이어 추가로 상당도서관의 개관을 이루었고, 남부도서관의 기공식까지 마쳤다. 민선 4기에는 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시에 「책 읽는 청주–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 시민독서운동도 펼쳐나갔다. 이후 2010년 민선 5기(한범덕 시장) 출범 초기에 남부도서관이 개관되었고, '청주시립도서관의 중·장기발전계획'도 수립되었지만, 지금까지 도서관의 추가 건립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 정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2014년 민선 6기(통합청주시장)의 출범과 함께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선진적인 도서관 건립과 운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청주시 도서관 사업과 문화를 함께 일궈온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청주시의 모든 도서관 건립과 운영, 발전의 역사는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와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은 청주시가 주민 수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관수면에서 전국에서 중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999년까지만 해도 청주시의 공공도서관 건립 현황과 운영 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다. 2003년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이 개관되기까지 전국에서 시립도서관이 한 곳도 없는 유일한 시가 청주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던 청주시가 청주기적의도서관 유치 과정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도서관 문화의 새로운 싹을 틔우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후 10여 년 동안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는 청주시 시립도서관들의 건립과 더 건실한 운영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문헌정보학과가 그 동안 지역과 함께 진행해온 관련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주시 산하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전공교수로서 건의문, 토론,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주창하였다. 둘째,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청주기적의도서관의 유치, 선정, 개관 그리고 각 시립도서관의 기공식과 개관 및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청주시 산하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 교수들은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을 맡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넷째, 「책 읽는 청주–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 시민독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의 출범 초기부터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다섯째,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와 청주시립도서관 간에 '교육과정 협약서'를 체결하고, 전공교육 과정 개설 및 도서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학과에서는 도서관 현장의 요청을 받아 교과목명이나 교육과정의 내용을 개편하고, 학생들의 도서관 현장체험 교육과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 청주시립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가 공로패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그간 청주 지역의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 문화 보급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공로와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하겠다.

'책 읽는 청주'를 위한
꾸준한 연대와 노력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 도시 한 책 읽기(One Book One City)' 독서운동은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이 자치단체, 각종 기관·단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만들고 같은 책을 읽고, 관련된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읽기'의 경험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혼자 읽기'에서 나아가 토론을 통한 '생각 나누기'를 시도하여 나와 남의 다름과 같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책 읽는 청주–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 독서운동은 출범 초기부터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곽동철 추진위원장, 윤정옥)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청주시와 청주교육청, CJB 청주방송이 주관하고 청주시립도서관, 충북중앙도서관, 청주기적의도서관의 협력 속에서 그 반향이 한층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에서는 청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 동안 잊었던 책 읽기의 즐거움을 되찾고, 책과 더욱 가까워져 또 다른 한 권의 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그 안에서 다른 사람, 다른 시대, 다른 삶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청주의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도서관 경쟁력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은 도시경쟁력을 키우고,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주시도 시립도서관을 그 기반으로 삼아 새로운 가치 창출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도시를 건설해나가야 할 것이다. 통합청주시 역시 교육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구청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를 갖춰 통합시 전체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각 도서관은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식정보를 통한 문화향유권과 평생학습권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합 청주시는 「책 읽는 청주–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 독서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청주와 청원 주민을 대상으로 독서와 토론을 통한 화합의 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장으로서도 청주시, 충북교육청, CJB 청주방송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추진위원들과 함께 교육문화 관련 대학, 기업체, 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업 내용과 행사 영역을 확대하여 시민독서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문화도시의 꽃을 피우는 청주의 도서관들 TIP

청주시립도서관은 2003년 9월 4일 용암동 본관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권역별로 5개 분관(북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신율봉어린이도서관, 상당도서관, 남부도서관)을 건립해 현재 모두 6곳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개관한 청주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서 청주지역 어린이들의 '문화둥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청주시립도서관

개관 10년을 이제 막 넘긴 청주시립도서관은 청주시 최초의 시립도서관으로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10년 새 보유 장서는 4배나 늘어나 18만4천6백8십 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는 2.5배 늘어난 63만여 명으로 도서관 기능이 크게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국내외 지식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전자책과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오디오북 등을 새롭게 갖춰 정보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더했다.

청주기적의도서관

2004년 7월 개관한 청주기적의도서관은 '책 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과 'MBC 느낌표' 프로그램 그리고 청주시가 함께 힘을 모아 설립되었다. 전국의 기적의도서관 11개 관 가운데 운영과 실적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도서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주지역 어린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WOW People

청.인.보(淸人譜)
청대인의 삶과 철학을 기록하다

걸어온 삶으로, 살아온 궤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말하는 청대인.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합니다.

24
청인보 제1장
반듯이 지어 올린
일과 인생, 차천수 동문

28
청인보 제2장
'엄마의 마음'을 그리는
민화작가 한영희 동문

30
청인보 제3장
깊은 울림을 주는 정치학자,
김영재 교수

32
청인보 제4장
비움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공간의 창조,
박상아 학생

34
청인보 제5장
위풍당당 발차기,
태권도 국가대표
조슬기 학생

반듯이 지어 올린 일과 인생

효성건설 PG장, 진흥기업 대표
차천수 동문 건축공학과 72학번

1978년부터 시작된 한길 인생. '장인'과도 같은 정성과 고집으로 달려온 그 길이 누군가에겐 지도와 나침반이 되어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35년간 'LG건설(현재의 GS건설)의 전설'로 살아온 차천수 동문은 한 사람의 열정과 용기, 명예와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그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

건설현장 기술자에서 4개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가 마치 20부작 인생극장을 요약해 놓은 것 같다. 스물 일곱, LG그룹 공채 1기로 건설업계에 입성한 청주의 한 젊은이는 건설 현장에서 인생의 줄기를 세우고 마침내 꽃을 피웠다. LG트윈타워, 사우디의 Riyadh University, LG아트센터, 파주 LCD단지, 가든 파이브 등 국내외에 그의 손을 거쳐 완성된 무수한 건축물과 산업단지가 그의 지난날을 말해주고 있다. 무척 열심히, 정성으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차천수 동문은 청춘의 모든 시절을 'LG맨'으로 살았다. 1978년 럭키개발에 입사해 35년 동안 건설현장과 본부에서 건설인의 근육을 키워온 그는 일반사원으로 시작해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룹 내 최연소 임원으로 발탁되어 LG건설 부사장으로 건설 분야 전문경영인의 길을 걸었다. 지난 2012년부터는 효성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효성건설 부문장(부사장)을 비롯해 진흥기업, 효성에바라 엔지니어링, 공덕개발의 CEO로 새로운 삶을 열고 있는 중이다. 마포와 방배동, 한남동 세 개의 사무실을 오가며 네 개 회사를 진두지휘하는 그의 요즘은 도전과 보람의 연속이다. 재무와 인사, 자금 등 각 회사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지나온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들이고 있다. 운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효성건설과 진흥기업의 만성적자를 2012년 취임 이래 흑자로 되돌려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숱한 세월 현장에서 온 몸으로 익힌 경험과 감각이 총동원되었기 때문이다.

LG건설을 대표하던 곧고 바른 인생

'건설'은 지금도 차천수 동문을 따라다니는 별칭으로 통한다. 마치 이름 앞에 놓인 호처럼. 첫 근무지였던 부산의 금성사 공장 현장에서 기사로 뛰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건설현장을 내 몸처럼 살피고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고, 학군단 출신답게 일사불란한 리더십을 발휘하던 그의 능력이 쌓이고 쌓여 LG그룹 내에서 '건설 분야에 관한 모든 것은 차천수를 통하면 된다'는 믿음을 낳았다.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생각도 많아지고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일이라 안전도 책임져야 합니다. 적절한 긴장 속에 빈틈없이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익숙해지고 나니 나중에는 일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밀린 잠을 자다 포크레인 바퀴에 치일 뻔한 일도, 신축 중인 34층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질 뻔한 일도, 또 청주공단이 만들어지던 시절 소달구지에 목재를 싣고 날랐던 일도 모두 '24시간 현장을 지키던' 그에게 훈장처럼 남은 기억이다. 땅을 파기 시작해 준공하는 날까지 LG트윈타워를 올리는 4년 반 동안 하루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그룹 내에 공공연하게 전설처럼 전해진다. 건설회사의 꽃이라는 공무부장을 3년씩 담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일에 대한 그의 반듯함과 성실함 때문이었다. 협력회사를 관리하고, 자재의 구입 등을 총괄하는 공무부장의 자리가 평균 6개월에서 9개월마다 수시로 바뀌는 당시의 상황에서 그의 바른 인성과 책임감은 주목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양심에 벗어나는 일은 무조건 멀리했습니다. 그게 또 맞고요. 현장에서 부하 직원들이 밤늦도록 고생하는데 먼저 퇴근해버리는 것도 제 양심엔 영 개운치 않았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정성을 다하는 마음

이렇게 고지식할 정도로 소신을 지켜온 차천수 동문. 그에겐 2007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을 때의 감흥보다 LG백화점 부천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진하다.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연세대 대학원에서 학업에 몰두했고, 그러면서 기술사 자격증도 따냈다. 백화점 건물이 완공될 무렵엔 임원으로 승진도 했고, 공정과 마무리 모든 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사 시작 전, 분야별 담당직원들의 사진을 넣어 소개하면서 공사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 파격적인 시공계획 발표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 떨리는 한 장면이다. 지퍼가 반쯤 올려진 조끼 같기도 하고, 가운데가 Y자 형태로 구멍이 뚫려 있어 태권V의 얼굴 같기도 한 중앙우체국 건물은 명동에서 단연 돋보이는 건축물로 꼽히는데, 이를 직접 디자인하고 시공한 이도 차천수 동문이다.

대단한 열정 위에 학창시절부터 무언가 남다른 재능이 있었을 것만 같다는 물음에 그는 졸업작품전 이야기를 꺼낸다. "공과대학 학생회장을 하면서 졸업작품 발표를 준비해야 했어요. 건축전이죠. 그때 저는 2000년도의 청주대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구상했었어요. 그때가 74년이었는데, 김준철 이사장님께서 제 발표를 경청하고 계시는 사진을 어디선가 발견하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의 인생 첫 번째 건축설계는 청주대학교 마스터플랜이었던 셈이다.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에는 학교와 친해야 합니다. 저도 그때 학과 교수님과 많은 의논을 거치면서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잘되어야 내 존재의미가 바로 서지 않겠어요?" 모교가 잘되어야 나의 뿌리도 곧게 설 수 있다는 생각에 졸업 후 그는 동문회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 청주대학교 재경동문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동문들에게 줄곧 강조해온 말도 이것이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자." 건설 분야에서 오직 한길을 걸어온 그가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자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을 품고 있는 결정적 한마디이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자."
건설 분야에서 오직 한길을
걸어온 그가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자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을 품고 있는
결정적 한마디이다.

청인보 淸人譜 제2장

붓 따라

‘엄마의 마음’을 그리다

남송민화연구소장, 충북민화협회장
한영희 동문 공예학과 82학번

한영희 동문은 가장 한국적인 그림,
민화를 그린다. 곱게 물들인 한지 위에 세필
붓끝으로 인생을 닮은 선과 색을 찬연히
수놓는 그녀는 전통민화와 현대민화를 잇는
중간매듭이다. 소박하지만, 애틋한 염원이
담긴 아름다운 그림 속에서 자신과 주변의
삶을 풍요롭게 가꿔가는 한영희 동문.
남송민화연구소를 운영하며 청주지역을
민화의 숨결로 채우고 있다.

‘나무껍질 위에 그렸을까?’ 다가가 보니 두꺼운 종이다. 아름드리 나무에 종이 죽을 기다랗게 꾹꾹 눌러 붙여놓아 열흘 정도 말리고 떼어낸 다음 다시 햇볕과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기를 1년여. 그 위에 먹색을 입힌 후 색을 닦아내고 사슴과 바위, 복숭아와 물, 소나무와 학, 해와 구름을 그려 넣었다. 한영희 동문이 그려낸 민화 〈모정〉은 마치 나무껍질 위에 그려진 그림을 보는 듯하다. 짙은 고동색 종이 위로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난다. 오랜 시간 동안 작품을 향한 작가의 열정적인 손길이 전해진다.

“대학교 때 경복궁 근정전에서 처음으로
‘일월오봉도’를 봤는데, 보는 순간
굉장한 강렬함으로 와 닿았어요.
나도 모르게 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것이 민화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졸업 후 미술학원을 운영했을 때였다. 학원에 그림책을 팔러 온 책 도매인에게 〈이조민화〉를 건네 받고는 책 속의 그림들을 무작정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 전부터 그려온 익숙한 그림처럼, 운명처럼 민화는 그렇게 한영희 동문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도예가로서의 길을 걷다 갑자기 선택한 민화였지만, 가야 할 길을 비로소 발견해냈다는 희열에 그녀는 이내 민화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더욱이 소박한 민화 속에 담긴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한 태도와 애정은 알아갈수록 대단하고도 귀한 유산이었고, 이런 민화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꿈틀거렸다.

“모란은 화목과 부귀, 어해도는 입신양명을
뜻합니다. 특히 물고기가 큰 파도를 치고
오르는 것은 등용문을, 물고기가 노니는 것은
다산을 의미해요. 연꽃은 자손번창이고….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바라는 모든 것이
민화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모정 한지, 분채, 먹 41×189㎝

소과선 민화부채

그녀가 생각하는 민화는 ‘마음’이다. 그림의 소재와 내용 하나하나에 뜻이 있었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려야 하는 그림임을 알아야 했다. 8폭짜리 모란 병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가량의 긴 시간을 들여야 한다. 마음을 다독이고 인내의 시간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지난 18년 동안 그녀는 그렇게 마음의 그릇을 천천히 넓혀왔다. 몇 해 전에는 수능시험을 보는 아들을 위해 ‘어해도’ 몇 점을 그려 전시를 열기도 했다. 온전히 아들과 그의 친구들을 위한 전시였다. 한영희 동문은 민화의 전통기법을 고수하되 재료와 소재를 달리해 창의적인 민화를 그려내고 있다. 식기, 침구류, 의상, 가구, 벽지 등과도 접목해 민화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작가로도 인정받고 있다. 대부분의 민화 작가가 한지 위에 직접 색을 입히는 것과 달리 그녀는 한지를 붓으로 염색한 후 색을 채워나간다. 색이 뜨고 다소 가벼워 보이는 것이 싫어 찾은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그녀만의 ‘작품 색’이 되었다.

“창작이란 것이 워낙 힘겨운 일이다 보니
많이들 도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연구소와 청주대 평생교육원을
찾는 회원들, 특히 미대생들에게는
전통에서만 머물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청주지역에 유독 민화를 그리는 이들이 많은 것도 남송민화연구소를 거쳐간 그녀의 제자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10월이면 부채 장인이 만든 수십 개의 부채 위에서 살아 움직일 그녀의 민화들을 전주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니, 그녀가 이끄는 민화의 새로운 변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보아도 좋을 것 같다.

청인보 淸人譜 제3장

깊은 울림을 주는 정치학자를 꿈꾸다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 공감하고 소통할 줄 안다면,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이미 갖춘 것이다.
한국정치학회의 새로운 리더로 선출된 김영재 교수는
가치를 찾아내는 남다른 시선과 추진력을 지녔다.
생각에서 실천에 이르는 거리가 짧은 사람이다.
1년 동안 학회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지금 그는, 크고 작은 울림판을 세우고 있다.

한국정치학회 회장
김영재 교수 정치외교학과

지난해 11월 2일, 청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동문들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아갔다. 20여 년 전 학과 시험시간에 써서 낸 자신의 답안지를 되돌려 받은 것이다. 8절지 크기의 답안지를 한동안 바라보던 100여 명의 동문은 예상치 못했던 감동의 순간을 누렸다. 제자들의 시험 답안지를 이제껏 모아둔 이는 김영재 교수. 1990년 청주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학생들이 낸 답안지와 리포트는 물론이고 출석부와 병가 신청서 모두를 보관하고 있다.

"학생들이 하나하나 노력하고 땀 흘린 건데, 그냥 버리기 미안하고 아쉬워 한 해 두 해 모으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시절 자신이 쓴 글씨와 내용에 모두 놀라워하며 기뻐하는 걸 보니, 그것으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젊은 날의 열정을 오롯이 남겨준 김영재 교수의 '답안지 상자'는 청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기록이자 역사가 되었다.

'가치를 찾아내는 남다른 시선과 추진력'은 김영재 교수를 설명해줄 하나의 문장이다. 2007년에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을 청주대학교에 단독으로 초청하고, 그 이듬해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청주대학교 방문을 이끌면서 학교 구성원과 제자들에게 '지방대'와 '변방'이라는 낡은 사고의 울타리를 과감히 날려줄 것을 주문했다. 국제교류처장을 9년간 역임하는 동안에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국제화 부문 8위까지 올려놓으며 한 학기에 유학생 300명을 유치할 정도로 청주대학교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총동문회가 그를 유일한 '명예동문'으로 위촉한 것도, 또 한국정치학회가 새로운 수장으로 그를 선출한 것도 많은 이가 그의 '시선과 추진력'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창설 60주년을 이제 막 넘긴 한국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답게 규모와 활동 면에서 단연 앞선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학회의 역할과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에 학회를 이끌게 되어 오히려 더 힘이 솟는다는 김영재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총무이사·연구이사·부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새천년포럼 사무총장 등의 자리에서 길어 올린 무수한 경험과 인연은 진심으로 소통하고 봉사하려는 그와 학회에 큰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다.

"한국 정치를 충실히 진단,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우리 학회의 역할인데, 그간 사실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소통하는 학회, 한국사회에서 권위 있는 학회, 또 봉사하는 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이 세 가지로 학회의 기본을 세워가면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겠지요."

청주대학교가 제2의 모교가 되어버린 김영재 교수가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도 '성실을 섬기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대 유학시절,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도서관에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오는 사람이었다. 맨 아래에서부터, 기본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오직 공부에만 몰입했던 시간을 지나 석·박사를 5년 7개월 만에 마칠 수 있었다.

"저는 제자들에게 대학 4년 동안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늘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예전보다 스펙이 늘었을지는 몰라도 가슴의 열정만큼은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매 순간 치열하게 고민했으면 합니다."

학회장으로 1년을 움직이는 동안 그의 시간은 조금 더 빠르게 흐르고, 그의 동선은 조금 더 복잡해질 것이다. 올 10월에는 '제네바 합의' 20년의 의미를 평가하는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전문가인 그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현될 것 같다. 그의 남다른 시선과 추진력으로 말이다.

청인보 淸人譜 제4장

비움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공간의 창조

제32회 대한민국건축대전 대상 수상
박상아 학생 건축학과 5학년

공간에 대해 우주처럼 생각을 키워왔던 건축학과 5년의 시간. 그 안에서 마음껏 헤엄쳤다는 박상아 학생은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건축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바른 건축이란 어떤 것인가? 이 물음에 그녀는 "제대로 비워 채우는 것"이라고 답한다. "건축의 빈 공간은 그릇의 빈 공간처럼 무엇을 위해 비어있다"는 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멋진 건축학도다.

"거리를 걷다가 문득 옛날엔 이 길이 어땠을지, 이곳은 어떤 공간이었을지 상상해볼 때가 있어요. 특히 옛날 건물이 남아있는 곳을 지나칠 때면 한참을 둘러보게 돼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졸업작품 전시에 선보일 프로젝트를 구상했던 박상아 학생은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보리라 마음먹었는데, 그것이 지난해 대한민국건축대전의 공모 주제와 묘하게 겹쳤다. 건축학과 5년을 정리하는 작품이자 공모전 작품으로, 그렇게 반년을 프로젝트에 몰입했고 대상을 받았다. 전국에서 참가한 666명의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대한민국건축대전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있는 건축 공모전이다. 2013년 공모전의 주제는 '건축, 사회적 공간 만들기(Social Spacing)'. '도시에서 방치되거나 소외된 장소의 재생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장소성의 구현과 건축적 대안의 제시'라는 주문이 있었다.

"소방도로가 생기면서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이 충돌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미래의 주택공간을 창조해봤습니다."

그녀의 작품 주제는 '풀뿌리 커뮤니티의 건축적 재생'이었고, 점차 쇠퇴하는 오래된 주택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도시재생을 시도했다. 도시가 발전한다고 왜 모든 것을 헐어내야 하는지 건축학도로서 안타깝게 여겨왔던 생각들을 모두 담기로 했다. 예전의 주택을 없애지 않고도 변형 등의 방법을 통해 1층은 커뮤니티와 상업적 공간, 2층은 거주공간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또 비워지는 공간은 과감히 비워주고, 맞물리는 이형의 공간은 연결시켜 휴식과 복지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면 어떨까? 이런 그녀의 생각은 점차 정리되었고, 1차 기획안이 통과되면서 구체적인 공간창조가 이어졌다.

"학과 교수님들, 특히 김태영 교수님께서 늘 자극을 주셨어요. 저만의 우물 안에 갇혀 더 넓게 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방법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던 시간이었어요."

주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입체패널 작업은 역시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엄지와 검지 끝에서 도시의 수많은 미니 조형물들이 완성되고, 계획했던 대로 그녀만의 새로운 도시공간이 꾸며졌다. 그 도시를 보니, 안으로 쏙 들어가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고 싶어졌다. 비울 곳은 비워야 한다는 그녀의 소신답게 옛집과 새 건물 사이 공간마다 강약이 느껴진다. 집과 집 사이 새로운 길이 이어지면서 의외의 열린 공간으로 연결된다.
어찌 보면 그녀의 작품은 '비움'을 통한 공간 창출이었다. 스무 살 초반의 여느 건축학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과감하고도 깊은 성찰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1학년 때부터 물 만난 고기처럼 학과 공부가 신났고, 충청북도 미술대전(우수상), 친환경 건축디자인공모전(가작), 도코모모코리아 디자인공모전(입선),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장려상)과 같은 수많은 공모전에서 치열하게 생각을 키워왔기에 가능했던 일일까? 졸업하기도 전에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건양기술공사건축사무소가 지난 12월 그녀를 신입사원으로 맞이했고, 그녀는 지금 전략디자인팀에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다.

"학과 교수님 가운데 존경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저도 교수님들께 배운 그대로 나누고 싶어요. 좋은 경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니까 일도 열심히 배울 겁니다."

본질에 충실한, 절제미와 여백을 품을 건물을 짓고 싶다는 박상아 학생. 건축의 본질은 공간의 구축이라는 건축철학이 이미 그녀 안에 둥지를 틀고 있다.

청인보 淸人譜 제5장

아시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조슬기 학생 체육교육과 2학년

위풍당당 발차기, 마침내 아시아 정상으로

처음으로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주위를 놀라게 했던 태권 청년 조슬기 선수. 작년에는 아시아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겨루는 아시아대학 선수권대회에서도 가볍게 우승을 차지했다. 태권도의 절도 있는 몸짓이 그저 좋다는 해맑은 청년. 아름다우면서도 힘 있는 움직임이 경기를 꽉 채우니 그 또한 행복하다는 그의 말에는 정적이며 동적인 태권의 기운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도복을 처음 입은 후 줄곧 태권도를 해왔지만, 조슬기 선수는 눈에 띄는 선수가 아니었다. 중고등학교 때 출전한 시 대회, 도 대회에서도 그의 성적은 언제나 평균치에 머물렀다. 그러다 대학에 입학한 첫 해, 난생처음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덜컥 금메달을 따버렸다. 경쟁이 치열한 대학부 경기에서 1학년이 선배들을 차례로 꺾은 흔치 않은 성과였다. 2013년에는 아시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출전해 8강과 4강, 결승을 내리 이기고 또 다시 우승을 거머쥐었다. 아시아 27개국에서 국가대표급 선수 600여 명이 참가한 규모 있는 국제대회였고, 그가 출전한 +87kg급에만 20여 명의 선수가 기량을 겨뤘다.

"결승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상대 선수가 풍생고 재학시절에 만나 겨룬 적이 있는 필리핀 선수였거든요. 무대 위에서 서로 눈빛 인사를 나눈 후엔 정말 거침없이 경기가 흐른 것 같아요. 4대 1로 이겼다는 게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제대회 금메달리스트치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조슬기 선수. 그의 드라마틱한 성장의 비결이 궁금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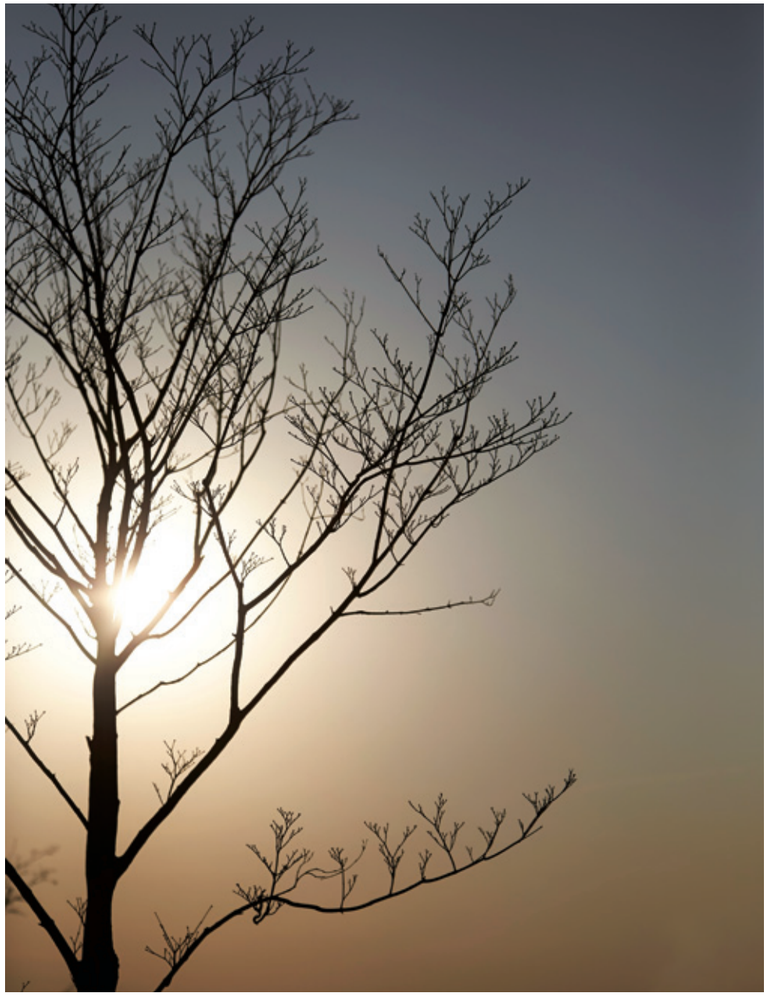
"청주대가 다른 학교에 비해 운동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훈련이 타이트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개인 훈련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 감독님과 코치님이 선수들을 믿어주시니까 선수들이 스스로 더 열심히 훈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 모르게 혼자 연습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조슬기 선수는 스스로 맞는 운동을 찾게 하는 청주대의 훈련 방식이 몸에 꼭 맞는다. 의도하지 않게 커 준 키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는 재미난 행운을 고백하듯 '키의 역사'를 털어놓는다. 중학교 1학년 때 발목을 다쳐서 1년 정도 운동을 쉬어야 했는데, 그때 갑자기 키가 훌쩍 자란 것이다. 당시 160cm에 불과했던 중학생 조슬기는 이제 192cm의 헤비급 선수가 되었다. 예전보다는 덜하겠지만 그의 키는 태권도 선수로는 상당히 큰 편이며, 장신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이 그를 대표하는 주특기가 되었다.

태권도 선수로서 최고의 경기를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빠짐없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유지하는 것도 조슬기 선수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부상 중인 왼쪽 새끼손가락도 보살펴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잘 자란 잣나무처럼 듬직해 보이는 태권도 선수에게 새끼손가락 부상이 대수냐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겨루기 경기를 해야 하는 태권도 선수에게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다. 지금 그에게 새끼손가락과 학점과 세계대회는 모두 중요한 문제다. 길다면 긴 진흙 속의 시절을 보낸 진주알 같은 보배, 조슬기 선수는 일상의 소소한 언덕들을 넘는 것이 곧 큰 산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아직 딱히 진로를 정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외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자라서 그런지, 그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제 꿈이 된 것 같아요."

머리로 복잡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먼저 몸으로 배우고 그 '촉'을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한 현명한 젊음의 생기가 들리는 듯하다. 올해 열릴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출전권을 따는 것이 당장의 목표라는 조슬기 선수의 말을 듣자니 꽃송이를 들여다보려고 몸을 구부린 한 거인이 떠오른다. 고된 훈련을 견디면서도 묵묵히 외길 위에 땀을 뿌릴 수 있었던 이유는 태권도가 그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이자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이리라. 땀과 애정과 노력과 결실 그리고 꿈이 섞여 있는 '태권청년 조슬기'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답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에
세상의 모든 본질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음을

작은 이파리 하나 남아있지 않은 앙상한 가지 위로,
초록의 빛깔이 모두 사라진 회색빛 실루엣 위로
겨울의 붉은 태양이 고요히 내려앉는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에
더더욱 선명히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모든 본질들과
더 뜨겁게, 그리고 더 깊이 대면하는 사이,
우리는 겨울처럼 단단한 청춘이 된다.
쉬이 꺾이지 않는 강인한 나무가 된다.

Issue & News

멈추지 않는 도전
오늘과 내일을 잇는 대학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을 넘어
세계 속의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주대학교의 쉼 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환경 그리고 사람에 대한
청대소식을 전합니다.

38
Focus On
청주대 제9대 총장
김윤배 박사 연임 외

42
News Brief
청주대,
한중학술회의 개최 외

45
Special Lecture
김동온 LG화학 상무
명사초청 특별강좌 외

46
People News
이상렬 교수, 사이언티픽
리포트 논문 게재 외

Focus On

1

청주대 제9대 총장 김윤배 박사 연임

청주대학교의 제9대 총장으로 김윤배 현 총장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청석학원은 지난 11월 13일 청주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의 안건으로 제9대 청주대학교 총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김윤배 현 총장의 연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새로운 임기는 지난달 12월 27일부터 4년간이다.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회는 "설립자의 후손으로서 대학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사명감, 책임감과 함께 추진력이 남달랐고, 지난 총장 재임기간의 업적과 공로 또한 지대했다"며 "탁월한 경영 리더십으로 청주대의 미래비전을 밝히고, 미래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이라는 대학교육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김윤배 제9대 청주대 총장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학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다시 맡겨주셔서 어깨가 더 무겁다"며 "대학구성원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꾸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윤배 청주대 제9대 총장은 학교법인 청석학원의 설립자인 故 청암 김원근 선생과 故 석정 김영근 선생의 후손으로, 청주고를 거쳐 1982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청주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영국 헐(HULL)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청주대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의 분위기를 학내에 고취해 대학경쟁력을 높여왔고, 그 결과 각종 대학평가에서 상위권 수준으로 도약시켰다. 특히 대학의 국제화 필요성을 미리 예상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국내학생의 해외유학 지원책 확대 등에 특화하여 '국제화에 강한 대학'이라는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했다.

2

청주대,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청주대학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실시한 2013년도 대학기관 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한 교육의 질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1년부터 자체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인증을 준비해온 청주대는 지난 12월 27일,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에서 한국대학평가원으로부터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2011년부터 시행됐으며, 교육수요자 및 일반 국민에게 대학교육의 질 평가를 통한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2013년 평가는 대학사명과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과 경영, 사회봉사의 6개 영역과 17개 평가부문, 54개 평가 준거에 걸쳐 실시됐으며,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 평가결과 검증 등을 거쳐, 대학평가인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번 대학기관평가의 인증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년이며, 인증 결과는 2014년도부터 대학교육특성화사업 등 정부의 각종 행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 등으로 활용된다.

3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 학술회의 성료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회장 김윤배)가 지난 11월 19일 청주대학교 고위관리자과정 세미나실에서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환과 한반도'를 주제로, 청주대 평화안보연구소와 함께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원과 청주대 학생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윤배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이후 두 시간 동안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환'을 주제로 한 제1회의로 이어졌다. 이어서 진행된 제2회의에서는 '주요국의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한 열띤 토론이 계속됐다.

제1회의는 청주대 김영재 교수의 사회로, 공군사관학교 박봉규 교수가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한국외대 설규상 교수가 '중국의 부상과 미일동맹', 청주대 유호근 교수가 '동북아 국제질서의 지속과 변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고, 한양대 우평균 교수, 서원대 정상호 교수, 성균관대 심승우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회의는 서강대 류석진 교수의 사회로, 가톨릭대 마상윤 교수가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연세대 한석희 교수가 '중국 시진핑 체제의 한반도 정책',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이 '아베 정권의 등장과 일본의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으며, 한양대 김종법 교수, 충남대 김지운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서종진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4

청주대, 2014학년도 정시경쟁률 최종 4.58대 1

청주대학교의 2014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4.58대 1로 최종 집계됐다. 청주대는 지난 12월 24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340명을 모집하는 이번 정시모집에 6140명이 지원, 4.58대 1로 경쟁률이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 24명을 모집했던 예술대학 연극학과는 570명이 지원, 23.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영화학과가 12.73대 1의 경쟁률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항공기 정비인력을 양성하는 항공기계공학과 '나'군이 10.38대 1을, 조종사를 양성하는 항공운항학과 '가'군이 8.14대 1을 기록하는 등 항공학부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홍상표 입학처장(환경공학과 교수)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올해 전국 대학들이 수시 선발 비율을 늘린 점이 경쟁률이 소폭 하락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근 신설해 집중육성하고 있는 특성화 학과들이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청주대학교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4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는 2014년 1월 21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예술대학 '다'군과 항공운항학과는 2월 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 등록은 2월 6일부터 시작하여 10일 오후 4시에 마감된다.

News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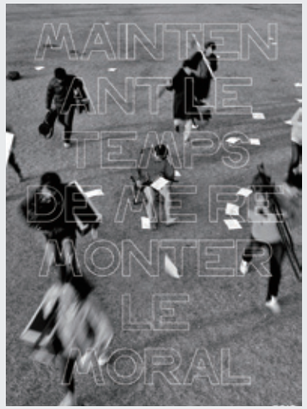
청주대, 한중학술회의 개최

한중교육기금회(이사장 김윤배)와 중한문화기금회(이사장 임추산, 대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10월 22일 우리대학에서 열렸다. 본관 청석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대만의 학자와 관계자, 학생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의 국제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박흥순(선문대), 강경태(신라대), 최영종(가톨릭대) 교수와 대만의 첨탁영(정치대), 진유혜(정치대), 진수형(환구대) 교수가 발표했다. 1976년 창립한 한중교육기금회는 1979년부터 대만 중한문화기금회와 공동으로 매년 학술회의를 번갈아 개최해 왔으며, 34번째를 맞았다. 우리대학은 한중교육기금회의 창립부터 지금까지 양 기금회의 학술회의에 참여해 왔으며, 1986년 대만정부와 중한문화기금회에서 도서를 기증받아 중앙도서관에 중국관을 설치, 세계적 희귀문헌인 사고전서를 비롯한 약 7천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다.

청주대, 사랑의 점심나누기 봉사활동

우리대학은 지난 11월 2일 낮 12시 청주 중앙공원에서 학생과 교직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원을 찾은 노인들에게 무료로 잔치국수를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들은 공원 한 쪽에 주방을 마련해 700인 분의 국수를 준비했고, 김윤배 총장이 학생들과 함께 공원 곳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우리대학은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이 같은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영화학과, 제66회 워크숍 영화제 개최



우리대학 영화학과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학생문화극장에서 제66회 워크숍 영화제를 개최했다. 워크숍 영화제는 학기마다 재학생들의 작품을 선정해 상영하는 영화제로, 매년 두 번씩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는 우리대학 영화학과가 3년째 진행하고 있는 '한중합작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양국 합작 영화가 상영되어 눈길을 끌었다. 4명의 학생과 함께 우리대학을 찾은 요성대학의 양바오화 교수는 "영화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종합예술이다. 젊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31일 오후 6시 30분 한중합작 영화 '송별회'의 상영을 시작으로 총 26편의 단편영화가 상영되며, 젊은 영화학도의 신선하고 기발한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였다. 우리대학 영화학과는 중국의 요성, 청도, 북경 등지의 대학들과 협력해 함께 작품을 제작하며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또 필리핀의 세계 3대 빈민촌인 '바세코'에서도 봉사의 일환으로 현지인들과 합작해 영화를 제작하며, 재학생들에게 국제 교류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청주대, 국방안보학술회의 성료

한국정치학회와 청주대 평화안보연구소가 지난 11월 8일부터 이틀간 우리대학 고위관리자과정 세미나실에서 '동북아 질서변화와 한·미 동맹 재조정 시기의 국방안보 전략'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8일 열린 개회식에는 유호열 당시 한국정치학회장이 개회사를, 김윤배 총장이 환영사를, 한범덕 청주시장이 축사를 했으며, 이어 한민구 전 합참의장의 기조연설이 30분간 진행됐다. 8일 열린 1일차 회의에는 '미·중 관계의 변화와 동북아 안보 현황'을 주제로 한 제1회의와 '한·미 동맹과 북핵문제의 접근방향'을 주제로 한 제2회의가 연이어 진행됐다. 2일차에 열린 제3회의의 주제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한·미 동맹의 미래'였다.

광고홍보학과, 고용부 TV광고 공모전 3위

우리대학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행복한 일터' 국민참여 TV광고 제작공모전에서 CF '레드카펫'으로 3위에 올랐다. 광고홍보학과 조현기 조교(기획)를 비롯해 박중근(제작), 황동환(기획), 송소윤(모델), 정광영(모델) 학생 등 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제작한 CF '레드카펫'은 장시간 근로개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레드카펫'의 기획 단계부터 학생들과 함께 모델로 참여한 광고홍보학과 김찬석 교수는 "대한민국 전체에 호소하는 기획의 대담함과 집중력 있는 메시지 전달이 좋은 호응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이일우 서기관은 "이번 공모전은 장시간 근로개선, 고용문화 선진화 등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약 2개월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126편이 접수됐고, 60편이 1차 통과 작품으로 선정됐다. 이후 네티즌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모두 29편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청주대, '중소기업 FTA활용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우리대학은 대학FTA활용강좌지원사업(책임교수 이재영)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20일 경상대학 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의 FTA활용 확산을 위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경연대회는 우리대학 대학FTA활용강좌사업, 경상대학, GTEP사업단의 주최 및 주관 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청주세관, 충북무역협회,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 FTA활용지원센터가 후원하였다. 대회에는 총 10개 팀 84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들 참가팀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 있어 FTA활용전략을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데 있어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주대, 2013년 장학금 370억 원 지급

우리대학이 지난 한해 국고장학을 포함해 모두 370여 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는 재학생 100명 중 약 36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 수준의 금액으로, 우리대학은 올해 정부로부터 교부 받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해 68여 억 원의 장학금을 확보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 인하율과 자체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이는 대학 측의 노력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아진 셈이다. 또한 우리대학은 등록금을 2년 연속 인하해 재정적인 부담이 큰 가운데서도 일반경상비를 최대한 긴축 억제하며 장학금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해 지급한 250여 억 원에 비해 100억 원 이상 많은 350여 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한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내 장학금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난 학기말까지 모두 50여 억 원의 장학금을 더 지급했다. 우리대학은 올해에도 등록금 전액과 기숙사 관리비, 수학보조금까지 지원하는 신입생 특별장학과 청석장학, 석우장학, 그리고 자격증취득 장학, 영어실력 향상 장학, 해외연수 장학 등의 다양한 교내외 장학제도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조경학과, 8일간 조경기사 특강 실시

우리대학 환경조경학과는 1월 둘째 주(7~10일)와 셋째 주(14~17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8일간 조경기사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학기 중 정규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겨울방학을 이용한 기사특강 실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조경학과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3~4학년을 대상으로 펼쳐졌으며, 강사진은 ▲시공구조학·조경적산(김영욱 한솔에스엔디 대표) ▲조경식재(정용조 경남과학기술대 겸임교수) ▲조경사(이민우 공주대 교수) ▲유지관리(이승제 서울나무병원장) ▲조경계획(홍윤순 한경대 교수) ▲조경설계(이상진 지오조경 대표) ▲설계실습(정재만 청주대 겸임교수) 등이 맡았다.

김병일 학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우리대학 건축공학과 4학년 김병일 학생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희망家꾸기' 활동에 대학생농어촌봉사단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희망家꾸기' 사업은 한국농촌건축학회 대학생농어촌봉사단과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다솜둥지복지재단이 시행하는 농가주택 개선사업이다.

News Brief

청주대, 국가장학금 탈락자 구제 6억 원 투입

우리대학이 2013년 2학기 지급기준에 못 미쳐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학생 196명을 구제, 이들에게 6억 2천6백만 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0분위)부터 소득분위 2분위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 가운데 가정형편상 각종 아르바이트 활동 등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저조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장학사정관제도를 통해 등록금의 10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구제하기로 한 것이다. 김경식 학생처장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통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우리대학 장학제도의 취지를 십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1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장학사정관제를 통해 이들을 구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지난 학기에 같은 사유로 구제를 받았던 학생과 학사경고(평점 1.50 미만)를 받은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산업디자인학과, 2013 대학창의발명대회 수상

왼쪽부터
박주희
이강직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가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2013 대학창의발명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는 전국 94개 대학에서 3,442건의 발명품이 출품되어 경합을 벌였으며, 이중 박주희 학생이 최우수상인 '특허청장상'을, 이강직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도교수 표창'을 받은 김동하 교수는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공으로 영예를 안았다. 한편,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실시하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식 교육은 6년 연속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 수상과 아울러 레드닷 주관 아·태권역 세계랭킹 14위라는 국제적 경쟁력으로 가시화됐으며, 이를 통해 창의발명대회에서도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윤진화 학생, 제12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장려상 수상

우리대학 정치외교학과 3학년 윤진화 학생이 서울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가 공동 주최한 제12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국 50여 개 대학 대표들과 미국, 일본,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온 사관생도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에 걸쳐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렸다. 대회 1일차에는 논문발표, 2일차에 토론, 3일차에 총평 및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은석 교수, 신소재 대체에너지 발표 및 시연회

우리대학 응용화학과 이은석 교수가 지난 1월 3일 이공대 세미나실에서 대체에너지로 활용 가능한 '신재생 신소재 팰릿형 세라믹스'의 연구개발 발표 및 시연회를 열었다. 원 개발자 정우 씨와 그린월드(대표 김주인)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이번에 발표된 팰릿형 세라믹스는 간접열을 가하여 발열을 일으키는 신소재로, 표면온도가 섭씨 600도까지 올라가는 전열기에 이 물질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섭씨 1,000도 이상의 열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 교수 측은 밝혔다. 이은석 교수는 "이번에 발표하는 신소재는 몇 가지 처리과정을 거친 국내 부존 광물로 만든 팰릿형 세라믹스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획기적인 재료이며, 현재까지의 연구로도 100일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했고, 발열 중에 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물성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에서, 획기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보일러와 발전기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1~2년 이내에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물질의 응용이나 물성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는 이은석 교수의 기조발표와 온풍기에 응용한 성능 테스트 시연회, 신소재 공개 시연회 등으로 진행됐다.

Special Lecture

명사초청 특별강좌
2013년 11월~12월

11월

11월 13일

김동온 LG화학 상무
'성공! 습관이 좌우한다'

우리대학 경제학과 출신인 LG화학 김동온 상무가 지난 11월 13일 모교의 명사초청 특별강좌 강단에 섰다. 청암홀에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김동온 상무는 '성공! 습관이 좌우한다'는 주제로 후배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청년실업의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습관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졌던 세 가지 습관이 있다. 사무실 등을 켜고 끄는 일은 항상 내 차지였고, 회의나 간담회에서 늘 남보다 먼저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모든 사소한 일들을 꼼꼼히 준비했다"고 말하며 강연을 이어갔다. 또, "고등학교까지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들어와서는, 더 어렵고 거친 취업 경쟁에 눈물 흘리며 힘겨워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면,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해내야만 한다. 나쁜 습관은 고치고 좋은 습관을 더해간다면 현실의 벽도 낮아질 것"이라는 진심 어린 조언도 덧붙였다.

김동온 상무는 우리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LG화학에 입사했다. 1995년 청주공장 총무팀 과장, 2003년 청주공장 노경팀 부장, 2006년 청주공장 노경담당 공장장, 2008년 오창1공장 노경담당 공장장, 2012년 오창1공장 노경담당 상무 등을 역임하고, 현재 LG화학 오창·청주공장 주재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1월 6일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ICT 융합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흥남 원장이 지난 11월 6일 우리대학이 주최하는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연자로 나서 "2020년에는 현재의 네트워크보다 10배는 빠른 기가코리아 시대가 열린다. 지금은 제2의 산업혁명인 '스마트 혁명'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특강에서 'ICT 융합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 원장은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핵심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많은 노력으로 창조경제에서 두각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창조경제를 'E=MC^2'라고 정의하며, "창조경제(Economy of Creation)는 융합(Convergence)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고(Creation), 사업화를 통해 돈(Money)을 버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원, ETRI 기획본부 본부장 등을 거쳐 현재 ETRI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ETRI는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복합기술 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1976년에 설립된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People News

Faculty News 교수소식

1 이상렬 교수, 사이언티픽 리포트 논문 게재

우리대학과 성균관대 공동 연구진의 인공적으로 설계된 초격자 박막을 이용하여 고이동도와 고신뢰성을 동시에 구현한 트랜지스터 소자개발 관련 논문이 세계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현의 핵심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산화물 트랜지스터의 이동도 한계와 신뢰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박막구조를 제시했다.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2 임승빈 교수, 연극배우로 정식 무대 데뷔

국어국문학과 임승빈 교수가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 앞 예술나눔터에서 공연된 연극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에 출연했다. 평소 이 작품만 100번이 넘게 관람했을 정도로 작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임승빈 교수는 극중 '방장스님' 역할을 맡아 생애 처음으로 정식 연극 무대에 오르며 삭발까지 감행해 극단 관계자와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3 심재승 교수, 충청북도 공직부패방지 토론회 참가

행정학과 심재승 교수가 지난 11월 28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패없는 공직사회 만들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필환 전 한국부패학회장의 사회로 심재승 교수를 비롯해 윤은기 한국부패학회장, 이상범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 등 7명이 토론을 벌였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충북은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시책들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4 황신모 교수, 영충호시대 발전전략 간담회 참석

경제학과 황신모 교수가 지난 11월 28일 라마다 청주호텔에서 열린 '영충호시대 발전전략 간담회'에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장, 이경기 충북발전연구원 박사, 송재석 세명대 행정학과 교수, 허원 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등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번 간담회는 충북도가 영충호시대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향후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5 김택상 교수, 개인전 'In Between There' 개최

비주얼아트학과 김택상 교수가 지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갤러리 데이트에서 개인전 'In Between There'전을 열었다. 이번 개인전에서 김택상 교수는 모노크롬회화나 색채추상회화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 높은 '빛의 회화'를 선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6 이애란 교수, 한국조경신문 객원 논설위원단 위촉

환경조경학과 이애란 교수가 2014년 한국조경신문의 객원 논설위원단으로 새롭게 위촉됐다. 조경분야에서 학계 2명, 업계 3명, 관계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논설위원단은 2014년 1월 2일자 신문(283호)부터 앞으로 1년 동안 '조경시대'를 집필하게 된다. 한편, 이애란 교수와 함께 위촉된 객원 논설위원단은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 김재준 방림이엘씨(주) 대표, 안상욱 LH 파주사업본부 건설사업단장, 안세헌 (주)가원조경설계사무소 대표, 배호영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소장, 이유직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등이다.

7 박재희 교수, 춤 인생 50주년 기념 공연

체육교육과 박재희 교수가 춤 인생 5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1일, 서울 아르코극장에서 '벽파 박재희 춤 50년–강산연파(江山延波)'를 공연했다. 박 교수의 춤 인생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은 한 모금의 생명수가 산 속 옹달샘에서 태어나 계곡의 시내, 고을의 개천, 도읍의 강을 거쳐 망망한 바다에 다다르는 여정을 풀어낸 무용 대서사시다. 그 동안 박재희 교수가 안무를 맡아 큰 인기를 끌었던 '황토누리'와 '종이무덤', '그 바람의 신화' 등을 축약한 작품으로, 50년 춤 인생을 모두 반추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Alumni News 동문소식

1 박근희 동문, 삼성사회공헌위원회 부회장 선임

박근희(상학과, 76년 졸업) 동문이 지난 12월 정기인사에서 삼성사회공헌위원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박 부회장은 그동안 삼성 구조조정본부 경영진단팀장, 삼성캐피탈·카드 대표이사 사장, 삼성그룹 중국 본사 사장 등을 거쳐 2011년 삼성생명 대표이사로 활동해 왔다. 삼성사회공헌위원회는 삼성전자에서 자원봉사, 사회복지, 문화예술, 학술교육, 환경보전, 국제교류 부문에 걸쳐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기구다.

2 최병열 동문, 한국전력 옥천지사장 취임

최병열(산업경영대학원, 93년 졸업) 동문이 지난 12월 17일 한국전력 옥천지사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최병열 한전 옥천지사장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이웃 및 단체 등에 적극 봉사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병열 지사장은 2009년 한전 옥천지사장을 역임한 뒤 단양지사장, 음성지사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3 김정근 동문, '통일교육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김정근(법학과, 74년 졸업) 동문이 20여 년간 통일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통일교육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정근 동문은 동대전고 교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하였으며, 그 동안 통일부장관 위촉 통일교육위원, 충남 아산시 둔포면향토지편찬위원회 〈둔포면향토지〉 대표집필자 등으로 활동해왔다.

4 채수창 동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시원식품 대표 채수창(전자학과, 85년 졸업) 동문이 지난 12월 12일 (사)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가 주최한 '2013년 충북중소기업 융합 프라자'에서 중소기업 우수회원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도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충북테크노파크, 충북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5 장병집 동문, 충북 스페셜올림픽위원회장 추대

장병집(무역학과, 84년 졸업) 동문이 지난 1월 27일,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될 충북 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장 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책을 맡아 걱정이 앞서지만 희생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임 장병집 위원장은 충북지역대학 총장협의회장,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6 고임식 동문, 한국전력 영동지사장 취임

고임식(법학과, 88년 졸업) 동문이 한국전력 영동지사장으로 취임했다. 고임식 동문은 한전 충북본부 영업총괄팀장, 보은지사장, 대전충남본부 재무자재팀장 등을 거쳐 음성지사 고객지원팀장으로 근무했다. 고객접점업무의 베테랑으로 정평이 나있는 고임식 동문은 취임사를 통해 "영동지역의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는 무정전 전력공급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7 유재풍·장현석·김경배 동문, 제13회 충북도민대상 선정

지난 12월 3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충북도민대상'에서 유재풍(법학과, 80년 졸업) 동문과 장현석(건축공학과, 78년 졸업) 동문, 김경배(건축공학과, 83년 졸업) 동문이 도민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청주로의 유재풍 변호사는 지역사회 부문,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 이사로 재직 중인 장현석 동문은 문화체육 부문,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 김경배 동문은 선행봉사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8 이명식 동문, 제8대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취임

이명식(법학과, 06년 졸업) 동문이 지난 10월 28일 제8대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현장의 욕구가 반영된 전문화된 배분사업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성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이명식 회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총재, 청주 YMCA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충청에스엔지기술사사무소 회장으로 대한측량협회 중앙회장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 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청주대의 꿈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 수준의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사업이 기부자들의 정성과 노력에 힘입어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주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주대학교는 지역사회의 꿈을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컬 대학으로 거듭날 원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발전기금 종류

01 대학발전기금_ 교육환경개선기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기금으로, 주로 대학에서 해당 기간에 주력하는 사업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대학의 특성화 사업 지원**
- 선택과 집중, 강한 학부를 위한 선진적 전공 시스템 도입
- 다양한 분야의 초일류 연구소 육성 지원

◎**글로벌 캠퍼스 교육환경 구축 사업**
- 캠퍼스 국제화 사업
- 교육설비, 기자재 등 확충 지원
- 장애학생 복지시설 확충

◎**국제교류 및 국제화 지원 사업**
-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과의 학생 및 학술 교류
-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확대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 충북권역 이러닝 지원센터 지원
- 디지털 강의실 확충

02 장학기금

재학생들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자가 대학(원)이나 학부(전공) 및 학과 등 장학금의 용도를 정하면, 그 목적에 맞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03 대학발전기금_ 연구기금

세계적 연구성과를 이끌기 위해 교수들의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기금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04 대학발전기금_ 국제화기금

전 세계 90여 개 자매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술교류 등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석학이나 경영자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다.

◎**글로벌리더 육성 기금**
◎**자국 유학생 장학기금**
◎**국제 한국학연구기금**
◎**세계석학 초청 강연기금**
◎**세계경영자 초청 강연기금 등**

05 대학발전기금_문화예술기금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연 및 연극, 영화, 회화, 한국음악, 한국무용, 디자인 등 다양한 관련 전공과 학부의 교육, 연구기금으로 쓰이는 기금이다.

◎**공연예술지원기금**
◎**연극/영화지원기금**
◎**한국음악/한국무용 발전기금**
◎**디자인(산업/시각/공예/패션) 발전기금**
◎**회화/만화 발전기금**

기부 방법

기부 참여 안내

◎**약정서 작성**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작성된 기탁서를 FAX 또는 우편으로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고, 해당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이체)한다.

◎**온라인 무통장 입금**

발전기금 입금계좌로 입금 후 입금내역을 대외협력팀에 전달한다.

◎**직접 방문**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 방문 후 직접 발전기금 금액 및 용도를 약정한다.

◎**급여이체**

청주대 교직원의 경우 매월 급여의 100,000원 단위 이하로 기탁할 수 있다.

※유가증권 또는 현물 등 자산을 기탁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또는 대외협력팀으로 연락하여 학교 담당자가 기부자를 방문함

담당부서 연락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우편번호 : 360-764)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
Tel : (043)229-8011, 8012
Fax : (043)229-8015
e-mail : obwn@cju.ac.kr

청주대학교
CHEONGJU UNIVERSITY

인재의 꿈을 읽다!

미래를 연다 세계로 간다

당신의 열정은 미래보다 커다랗기에
당신의 가능성은 세계보다 넓기에
당신의 내일과 청주의 오늘이 만나
가장 뜨거운 변화와 혁신을 시작합니다.
'신수도권 명문대학' 청주대학교에서
미래로, 세계로 마음껏
당신의 꿈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인재의 꿈을 읽다 – 청주대학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학생중심대학

- 장학금 370여 억원 지급(2013년)
- 외국인 교수비율 전국 10위(2013 조선일보-QS 대학평가)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세계 29개국 150여 대학과 자매결연)
- 최신 아파트형 기숙사(2,300여 명) / 신입생 전원 수용 가능
-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공/진로/대학생활/취업까지 책임지는 책임지도교수제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선정(2012~2015)